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춤추는 **일상**

web.yonsei.ac.kr/ysfem
woolim@yonsei.ac.kr

춤추는 **일상**
2009 2호



『죽음』 反성폭력 스무살 언자들의 \『를 부동케한가 / 파올로 바알의
이성을 갖고 싶는데 / 내가 단절해야만 하는 바로 그 남성 특수요리
자신한 反성폭력 문화를 바라보는 작은 마음의 회고 / 그저 난감한
회중애 / 反성폭력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 - '성폭력에 맞서
를 읽고 / 물어먹기 좋은 향 인간이라기엔 미치근한 약간의 철학
모험 / 이번 게, 생활협동조합? 즐거움의 재구성 어느 데, 독자의 고백
그거 아니? 여성경제학 / 푸른 잎의 여름 속에 (일상, 울림)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춤추는 일

02 등잔 밑에 성폭력, 밝혀라 봐야!

특집 反성폭력

04 스무살 언저리의 '나'를 부둥켜안기 07 따옴표 바깥의 여성을 찾고 싶은데
11 내가 단절해야만 하는, 바로 그 '남성 특수업리터' 14 지난한 反성폭력 운동을 바라보는 작은 마음의 회고
17 그저 난감한 와중에 20 反성폭력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 - '성폭력에 맞서다'를 읽고
24 신혼의 업소자도 그러기 26 망언작별 - 교수언어성폭력

뜯어먹기 좋은 빵

27 인권이라기엔 미지근한, 약간은 캄캄지근한 30 이런 게... 생활협동조합?

즐거움의 재구성

34 어느 데, 독자의 고백 38 그게 아니? 여성영화제 40 푸른 일약

여름 속에 <일상, 올림>

42 <일상, 올림>, 이렇게 살았어요 44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팀에 함께해요!
45 우리의 빠르기로 사고하고 우리 몸이 숨 쉬는 곳, 에코페미니즘운동팀
48 녹색성장이 싫어서 슈렉의 늪을 지키는 카페 50 反성폭력주간 - 등잔 밑에 성폭력, 밝혀라 봐야!
51 2009 봄-여성주의 세미나 후기: 반짝반짝 빛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54 페미니스트 책 읽고 서평 쓰자! 55 총여학생회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56 후기



등잔 밑에 성폭력, 남녀간 피아야!



나카자와 리에

중학교 때, 엄마가 '테스'라는 책을 읽으라고 권했다. 두꺼웠지만 하도 읽으라기에 읽었다. 줄거리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어렴풋한 기억에 의하면- '테스는 친척집에 일하러 갔는데, 그 친척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한다. 집으로 돌아가지만, 가족으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의해 '몸 망친 년'이라는 반응을 접하게 될 뿐이었다. 나중에 테스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으나, 성폭행 당했던 테스의 과거를 그 남자가 용납하지 못한다. 결국 끝에 가서 테스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친척을 죽이고, 사형 당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테스한테 감정을 이입하며 읽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슬펐다. 그래, 그때는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성폭력을 겪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지. 그러니 뭐, 알아서 조심해야지.' 하지만 성폭력이 누군가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혹은 어둡어둡한 밤길에 외간남자에 의해 생기는 '정말 몹시 특수하고, 운이 나쁜 불행한 상황'에서 생기는 것인가? 성폭력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과는 멀리 떨어진 일인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는 다르게, 성폭력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강의실에서의 언어성폭력이나 인터넷을 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사이버 성폭력처럼, 성폭력은 일상 속에 존재한다. 나와는 동떨어진, 무시무시한 일로서 여겨지는 성폭력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있는 것이다. 왜 그런지 고민을 좀 해보자.

이 사회에서 남성은 성욕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지만, 여성은 누군가를 욕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보다는 남성의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남성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욕을 느끼는 것을 남성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배운다. 그리고 여성을 극단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포르노 등을 통해 자신의 성욕을 표출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서 받아들이고, 남성은 언제나 여성을 욕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성욕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이 성적으로 느끼는 상대방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당연하게 생각한다.

남성은 성적인 주체가 되고 여성은 성적인 대상이 되는 담론에는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권력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남성은 주체, 여성은 타자가 되는 성별권력관계 속에서는 주체인 남성의 시선과 성적 욕망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 섹슈얼리티 안에서 왜곡되어 설명될 뿐, 실제로 나타나지 못했다. 여성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남성주체의 욕망에 따라 남성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입장은 성폭력과 뿔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섹슈얼리티 억압을 통한 지배-피지배 관계는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서 사람들의 행동과 욕구에 영향을 준다. 중도 계사판에 이러한 내용의 폭지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중도에 오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왜냐하면 너무 신경 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신의 성욕을 자극하니, 이에 책임이 있는 여학생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거다. 중도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는 여학생들은, 남성들을 유혹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여성의 짧은 치마를 보고 자신이 성욕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드러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 사회에서 남성이기 때문이다.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욕을 불러일으키고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을 보고 언제나 성욕을 느끼는 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의 몸을 남성의 성욕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평가하는 성폭력적인 시선과 발언은, 당연하다는 듯이 흔한 일로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일상 속에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성찰 없이, '왜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었는가',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게 한 배경과 맥락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성폭력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다. 성폭력은 여성들이 위치 추적 핸드폰, 호신용 호루라기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조심해서 없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다. 또한, 성폭력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며 피해자들이 침묵하게 만든다고 성폭력이 없는 일이 되지 않는다. 받아들이기 힘들진 몰라도, 성폭력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불편한 진실/현실'인 것이다. 무겁다고, 두렵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제껏 제대로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해야만 한다.



스무살 언저리의 '나'를 부둥켜안기



내가 다 잘못된 것만 같았다. 괴로워하는 내가 바보 같았다. 생각해 보면 별 것 아닌데 왜 자꾸만 이렇게 기억나고 힘들어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자니 이전 너무나 명백하게 애인과 나 사이의 일이었지. 제3자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애인에게 말을 해보려고 해도 연애하면 당연히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따지고 드는 것만 같아서, 내가 치졸한 사람이 되어 버릴까봐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다.

화창한 어느 날이었다.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아, 편두통이 또 오는구나. 서너달에 한번씩 내게 찾아오는 편두통은 내가 앞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왼쪽 머리에 망치로 누군가가 두드리는 듯한 고통을 준다. 그리고 나면 그대로 멀미가 나서 속이 뒤집어진다. 형광등 불빛에도 어질어질, 작은 말소리 하나에도 어질어질, 말 그대로 자옥이다. 집에 가서 쉬면 좋을 텐데, 그날 따라 집에 아무도 없었다. 거동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자 아픈 건 너무 서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렀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남자)애인에게 전화해서 같이 집에 가달라고, 조금만 나랑 같이 있다가 집에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금세 애인이 학교에 도착했다.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도 애인 손을 잡고 있는 게安心이 됐다. 이렇게 바로 달려와 준 애인이 너무 고맙았다.

집에 도착해서 겨우 약을 챙겨 먹고 침대에 누웠다. 극심한 두통에 오지 않는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데, 애인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덕분에 1시간 정도를 잘 수 있었다. 눈을 떠보니 애인이 내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몸을 뒤척였더니 애인이 잤다. 괜찮냐고 물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두통은 여전히 심했다. 애인이 내 머리를 다시금 몇 번 쓰다듬더니 아파서 어떡하니, 근데 그래도 예쁘다라며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중간 중간 애인이 이래도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볼레했지만 나는 싫다고 하지 못했다. 내가 싫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이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애인에게 정말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힘껏 저항하는 것이었을 테다. 하지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아픈 나는 몸을 제대로 가눌 힘조차도 없었기에 편한 말을 꺼내느니 가만히 있는 편을 택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나는 애인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얘기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할까, 그러기엔 애인이 아픈 날 보살펴줬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고 애인이 내 의사를 안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집에 애인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끝까지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분리되어서 생각되어야 할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남아서 애인은 잘못된 게 별로 없고 오히려 내가 이상해서 그런 거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기 때문이다. 아픈 나를 돌봐주러 온 상대방은 고마운 사람이었고, 예정에 없이 애인을 부른 나는 편가 빚진 기분이 들었다. 내 섹슈얼리티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은 '날 챙겨려 온 것'에 대한 '보답'처럼 느꼈을 것만 같았고, '애인에게 입은 은혜'로 인해 내게는 발언권이 없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애인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내가 아팠던 그 날 한 때의 일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것은 단지 내가 아팠던 그 날의 상황이 내 입을 막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보니, 애인과 나의 관계에서는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

애인의 친구들 앞에서 애인이 내 허리를 만지는 등 내가 원치 않을 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일도 잦았고, 말다툼이 있을 때 여성비하적인 욕설을 퍼붓는 것과 같이 언어성폭력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애인과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애인의 것'인 게 너무 당연했기에, 여성비하적인 욕설을 퍼붓는 것은 애인이 화가 났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나는 싫다는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애인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그 순간 순간을 회피해버리는 것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애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나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는 내 몸을 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이 모든 경험들로 비추어보건대, 내가 힘들었던 건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애인과 내가 관계 맺는 방식 그 자체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 지에 대해 이제 와서 고민을 해보니, 분명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있었겠지만 애인이 여지껏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섹슈얼리티가 그만큼 폭력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TV를 보면서 여성 연예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애인의 그 시선은 나를 향해 돌아온 듯했다. 내 몸의 일부분을 보며 '이건 좋다, 저건 싫다'라고 서슴없이 말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방식으로 아무런 성찰 없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던 애인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 일 것이다. 남성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통제가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그대로 체화하고 내게 설득하려 했던 애인의 행동들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애인의 믿음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와서 당시의 연애를 평가해보면 왜 내가 기분이 나빴는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연애가 진행 중이던 그 때에는 명확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하게 짚어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애인과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애편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은 관계맺는 방식에 대해서 소통할 수 없었다. 상대방은 어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연애편계에서 느끼는 '좋은 감정들'을 앗아 갈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 지내고 싶은 사람과 관계가 붙어지는 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었다. 애인과 내가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때문에도 많이 겁을 먹었다. 내가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은 '불평'이나 '불만'처럼 받아들여졌고 (어쩌면 말하기 방식에 있어서 내가 그런 분위기를 풍겼을지도 모르겠다) 애인은 수긍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아망을 베른다'는 느낌으로 침묵으로 일관하며 나를 '보듬어' 주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정 아니다 싶을 때에는 싸우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면, 나는 이상하고 예민한 것처럼 내몰리곤 했다. 내가 성폭력이라고 받아들였던 문제들에 대해서 싸운다고 생각만 해도 나는 너무 지쳤고, 싸우기 위해 내가 겪은 일들을 기억해 내고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과롭게 느껴져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당시에 사귀던 애인과 헤어지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지금도 나는 내게 상처가 되었던 일들을 전부 잊고 있는 일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다. 그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도 생각나는 사건들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게 될 때 혹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상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성폭력적인 경험들이 이미 지로 남아 날 괴롭히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때면 끊임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된 경험들을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한다. 조금은 무더지면 좋을 텐데, 하면서도 어쩌면 피해버리는 게 답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조금씩 든다. 조금 더 내 경험을 직시하고 내 감정들을 돌볼 필요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기억들을 재구성해낼까 나는 아직도 궁리 중이다.

by 살아남기는 전쟁 중 타이레놀

따옴표 바깥의 여성을 찾고 싶은데



어린 시절, 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숨기며 살았다. 가슴이 솟아오를 무렵, 브래지어를 했다는 사실이 남자들에게 들릴까봐 일부러 허리를 구부정하니 다녔다. 생리가 시작된 것도 숨기다가,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팬티가 발견되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된통 혼났다. 나는 정말로 정말로 '여성'이 되기 싫었다.

첫째, '여성'은 위협받았다. 내가 처음으로 나의 섹슈얼리티를 원망한 순간은 학교길에서 바바리맨과 마주친 골목이었다. 바바리맨은 다리를 펴 벌려서 나를 막았고, 나는 가방을 움켜쥔 채 바바리맨에게 가로막혔다. 뉴스에서 봤던 성폭행범과, 신문에서 봤던 인신매매범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바바리맨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페니스를 갖다대더니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졸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골목으로 학교하지 못했다. '여성'이 되면은 언제나 낯선 남자의 성희롱, 성폭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았다.

둘째, '여성'은 보호받았다. 내가 처음으로 나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한 말은 "나는 아기를 낳을 몸이야"였다. 성교육 시간에 배웠던 그 말 그대로, 심지어 성교육 시간에 배웠던 그 포즈-양 손을 가슴 앞에 엑스자로 감싼 자세- 그대로, 아이스케키 하려는 남자들에게 그렇게 외치곤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이에 질세라 올 아빠는 "남자는 모름지기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남자들을 야단치며 아버지 체면을 차렸다. 그 한 마디에 그동안 시도때도없이 나랑치고 박던 남자애들이 갑자기 나에게 조심조심하는 모양새가 어쩌나 웃기던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보호는 엄중해지고, 나는 짜증나기 시작했다. 그 보호라는 것이 '짧은 치마는 입지 말라'느니 '밤늦게 노는 건 안 된다'느니 각종 '여자는 할 수 없는 것'만 늘어놓는 방식

나는 여전히 밤길이 무서웠다. 행여나 남성이 데려다주지 않는 날에는 가로등 없는 골목길을 숨차게 뛰어야 했다. 내가 안전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무서운 건 '바바리맨' 만이 아니었다. 나랑 매일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남자선배들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었기 때문이다. 높은 사람에게 내 모든 행동이 간섭받고 관리 받는다는 압박감아래, 항상 명령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야단치는 '보호'라는 것이 시덥잖게 느껴졌다.

보시다시피 어린 나에게 '여성'이 된다는 것은 당최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 '여성'이 되면 나는 항상 위험한데다,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더욱더 위험해졌다. 그래서 나는 '여성'을 감추기 위해 목욕하고 나서도 위아래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팬티만 걸치고 TV앞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더니 흐뭇하게 말했다. "우리 딸, 여자 다 됐네."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려 애썼다. 과반의 선배들 이랑 친해질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여성'스러운 사람이 유리했다. 나는 그동안 조신한 옷차림을 요구하는 아버지 밑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짧은 치마와 진한 화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시작했다. 콘돔의 사용법을 배우면서 나는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섹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고, 든든한 남자 애인이 매일 집까지 바래다주는 골목에서 '바바리맨'은 안중에도 없었다. '여성'이 되면 나는 항상 주목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라는 권위적인 가부장 이 아니라 다정한 남성 애인이 사랑의 이름아래 날 보호해주었다. 나에게 섹슈얼리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는 어느새 '여성'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여전히 밤길이 무서웠다. 행여나 남성이 데려다주지 않는 날에는 가로등 없는 골목길을 숨차게 뛰어야 했다. 내가 안전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무서운 건 '바바리맨' 만이 아니었다. 나랑 매일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남자선배들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남자선배들은 나의 애인에게 '진도'를 까발릴 것

을 요구하고 그걸 안주거리 삼아 나불거렸다. 나의 성격형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내 애인의 것이며, 곧 내 애인의 남자선배들의 것이었다.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가 더 가관이었다. 그래도 걸으려는 나의 '섹시함'과 '개방적인 모습'을 칭송하던 그들이 갑자기 나를 '문란한 여자'라며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성에게 성격형은 자랑이 되지만, 여성에게 성격형은 추방 사유가 될 뿐이었다. 그 속에서 그네들 공동체의 남성에게 '정조'를 바치지 않는 여성은 결국 공동체에서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더라. 게다가 남자선배들은 호시탐탐 나의 섹슈얼리티를 희롱하고 공격하고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덮어버렸다. 술자리만 가면 스리슬쩍 내 다리를 지분거리리는 남자선배,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보보 안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남자선배들 앞에서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거절했다가는 괜히 어색해질까봐 무서웠고,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 올까봐 겁났다. 나에게서는 성적 위협이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친밀감과 호감의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나의 섹슈얼리티는 안전해지지 못했다. 단지 위협의 범위가 바바리맨과의 우연한 만남에 더해서 남자선배들과의 일상적 만남으로까지 확장된 것뿐이었다.

게다가 남자애인의 보호 역시 '사랑'이라는 뭉크지가 뭉크워졌을 뿐, 가부장의 보호와 별다른 것이 없었다. '사랑'이라는 글자만 보면 정말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나와 소통하면서 나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결국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야단치는 방식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짧은 치마는 입지 말라'느니 '밤늦게 노는 건 안 된다'느니 하는 아빠가 했던 명령 앞에 단지 '다른 남자 앞에서'가 붙었을 뿐이었다. 애인에게 남자선배의 성희롱을 고백하면 '내 여자'를 지키지 못한 분노에 가득 차서 나를 놔두고 남자선배랑 쟁판을 치러 나갔다. 나는 내가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것이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하고 싶었지만, 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나 고통이 아니라 나의 '정조'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친구의 정조를 지켜주지 못한 남자의 위신'이었다. 결국 아빠도 남자애인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고분고분한 여성상을, 정조를 지키는 여성상을 따를 것을 명령했고, 그에 맞지 않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나를 비난했다. 여성이 스스로 섹슈얼리티를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만 그들이 안심하고 보호자 행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나의 섹슈얼리티는 내 손 밖에 있었고, 성적 모멸감은 치유될 틈이 없었다.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그 모든 위협과 보호는 성인이 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모든 관계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것뿐이었다.

참 웃긴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과 나를 위협하는 사람은 모두 그 남성들이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조금 더 '여성'스러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나를 보호해주려 했고, 더 변질나게 나를 위협하려 했다.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었던 나의 섹슈얼리티는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딱 고만큰뿐이었다. 남성이 좋아하는 '여자', 남성이 연애했만한 '여자', 남성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동적이고 약한 '여자', 그러니까 파음표 속에 갇힌 딱 고만한 '여자' 만큼. 그 이성애주의 각본 속의 '여자'를 벗어난 나의 욕망을 말했다가는, 성적 매력이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질까봐 무서웠다.

대학생이 되고, 나의 섹슈얼리티는 자유로워졌다고 믿었던만 결국은 위협과 보호의 섹슈얼리티, 그 이성애주의의 수동적인 섹슈얼리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단지 위협하는 사람이 바바리덴에서 남자선배까지 확장되었을 뿐이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빠에서 남자 애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들이 원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내 몸을 맞추어가는 데 익숙해지고, 그것만이 내가 욕망할 수 있는 것 인양 길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아기를 낳을 몸이야!"라고 외치던 어린 내 모습과 바바리덴의 뒷모습이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아직 시원한 맘으로 글을 끝내질 못하겠다. 가슴이 답답하다. 결국 난 이 글에서조차, 이성애주의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의 '여성' 밖에 말하지 못했다. 사실은, 작고 약해서 언제든지 남성이 '지켜주고 싶은' 혹은 '만지고 싶은' 여성이 아닌 나의 섹슈얼리티를 말하고 싶었다. 사실은, 이성애주의라는 숨 막히는 벽장 밖으로 나온 나의 섹슈얼리티로 활개치고 싶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성이 스스로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학교에서 배워온 터라, 쉬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사실 난 아직, 한 번도 나의 입술로 나의 섹슈얼리티를 말한 적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by 양주지마 입술 파니



내가 단절해야만 하는,
바로 그 '남성 섹슈얼리티'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엔 모든 '성적인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성인'이 아닌 '미숙한 청소년'이어서 그랬는지, 입시 이외의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금기였다. 그래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성'과 관련된 것, 더 자세히 말해 이성애 섹스에 관련된 것에 어떤 식으로든 다가가려고 했다. 그때 아이들은 주로 포르노그라피적 매체에서 성에 관한 정보를 얻었고, 애들끼리 말하거나 '재미없는' 성교육보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런 성적인 이야기는 주로 동성 또래집단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주로 어느 '이성'에 대한 성적인 가십거리, 자신이 본 포르노 이야기 등이었다. 동성끼리 성적인 농담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남성 연대의 중요한 의식이었고, 그걸 공유하지 않는 남성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시선을 견뎌야 했고, 침묵하거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성적인 것이 금기시 되던 시절을 지나 대학교에 들어오자, 갑작스레 '성적인 자유'란 것이 주어졌다. 성인으로서 성적인 것을 표현하거나 행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연애도 권장되었다. 특히 남성의 성적 욕망은 당연한 본능이라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남성다운 것이라고 권장되는 사회에서, 남성으로서 성적인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출하는 것은 더욱 쉬웠다. 하지만 정작 그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발현하는지, 그것이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 등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 섹슈얼리티는 성폭력적으로 발현되었으며, 사건으로 이어졌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일련의 경험들을 겪으며, 자연스레 그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형성하게 된다. 사실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절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동일한 사회 구조 내에서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겪는 경험들은, 자연스레 특정한 형태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해나간다. 물론 각자가 살아온 역사에 따라 개인의 섹슈얼리티는 모두 다르지만, 성별 구별이 뚜렷한 사회 내에서 일종의 집단 정체성처럼 남성에게 지배적인 섹슈얼리티 형태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남성 섹슈얼리티'는 남성 집단에서 비밀스레 공유되는 포르노그래피와 때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포르노그래피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현이다. 카메라의 시선도 남성이고,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소비자도 남성이다. 포르노에서 여성은 남성의 욕망에 따라 구성되어 남성 소비자가 원할 만한 성적 대상으로서만 재현된다. 강간 등의 성폭력을 재현한 포르노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카메라는 포르노배우를 넘어서 길을 지나다니는 여성, 교복을 입은 여성 등, 거의 모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재현해낸다. 이러한 포르노그래피적 시선을 내면화한 남성 섹슈얼리티는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여성이 얼마나 예쁘고 섹시한가, 얼마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가로 여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성의 사소한 행동이 남성적 시선에 의해 성적인 자극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남성들끼리 나누는 성적인 농담에서도 여성이 성애화된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렇듯 포르노그래피는 단순한 섹슈얼리티의 재현을 넘어서, 남성의 성폭력적 섹슈얼리티를 구성하고 강화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다.

또한 남성 섹슈얼리티는 구체적으로 맺는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여성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흔히 '지배욕' 혹은 '소유욕'이라고 말해지는 이 욕망은 특히 친밀하다고 여겨지는 연애편계에서 쉽게 발현된다. 연애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기를, 자신의 말을 잘 따르기를 원하고 강요하는 것 등이다. 여성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획득하려는 남성 섹슈얼리티는 섹스를 묘사할 때 여성을 '가진다' 혹은 '정복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여성을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 맺고 있는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대상으로 욕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남성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성적 욕망은 어쩔 수 없다는 편견을 바탕으로 '성적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마음껏 표출되는 것이 용인되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어쩔 수 없는 변화하지 않는 그 무엇도 아니다. 관계가 고민되지 않은 채 구성된 성폭력적인 섹슈얼리티는 성찰을 통해 재구성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성적인 실천을 하는 것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이고, 그 때 중요한 것은 그 관계맺음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다.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적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폭력성을 마음껏 표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연스럽게 남성 섹슈얼리티를 성폭력적으로 구성되게 하는 이 사회에서, 나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찰하는 것은 개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나도 모르게 여성을 성애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나의 욕망의 발현이 성폭력적인 상황을 만들 어낸다고 하는 순간들에 맞닥뜨릴 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었다. 사실 몇 십년 간 자연스레 구성되어 온 섹슈얼리티를 성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자신을 깨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은 괴로운 일인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찰과 노력 없이, 단순히 행동을 조심하거나 막연히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는 성폭력을 막아낼 수 없다. 섹슈얼리티가 자연스럽게 성폭력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에서 성폭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예민하게 성찰하고 재구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섹슈얼리티는 구성되는 것이라는 말은 동시에 그것을 재구성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분명히 괴로운 과정이다. 하지만 그 노력은 동시에, 성폭력적으로 구성되는 섹슈얼리티와는 다른 새로운 섹슈얼리티를 재구성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by 한길음한길음씨 수영

지난한 반성폭력 운동을 바라보는 작은 마음의 회고

학내에서 성폭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힘 빠지는 일이기 마련이다.

가장 잘 알려져있는 것부터 짚어보자. 중등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신입생 반성폭력 교양은, 더 잘 된 이해와 더 철저한 예방을 위해 주로 사례 중심이 된다. 어쩌면 '성폭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보이는,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에 대한 호소가 되기 쉽기도 하다. 제일 쉽게 풀어 말하려면 중고등학생 성교육으로 적절할만한, '포르노에 나오는 것처럼 하면 혹은 성적인 행위를 마음대로 하면 여자들이 싫어해요' 나,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정도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되기 마련이다. 반성폭력에 대한 동의인지, 술자리 에티켓에 대한 동의인지 모를, 의미가 희박해진 동의만을 구하는 내용이 되기 일쑤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도저히 '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심정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평을 듣게 된다.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성별권력관계의 문제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까칠한 사람들이 떠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 성년이 된다는 과정은 대부분 성에 대한 접근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성간의, 혹은 동성간의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는 미궁에 남아있는, 그런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사례들의 금지'로 이어지는 반성폭력 담론의 실효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러브샷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해도 되나, 안 되나' 등의 질문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막대한 반감과 함께 반성폭력을 외쳤던 바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순간, 그간 했던 이야기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도록 만든다.

우리에게는 다만,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듣고, 서로를 설득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을 재구성하려는 노력까지, 그 길고 긴 과정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래서 문제는?

가부장제 사회일 것이다. 원래 당연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회, 발생해도 괜찮은 성폭력과 발생해서는 안 되는 나쁜 성폭력을 가르는 사회, '이것은 성폭력이다'라는 말을 '이 가해자를 처벌하라'라는 단 하나의 의미로 환원하는 사회, 그것 외의 '성폭력이라는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입밖으로 내지 말 것을 명하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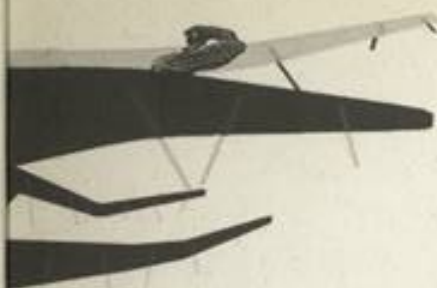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말을 꺼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그것은 성폭력이다'고 말했을 때에, 가해자가 아닌 누군가가 마치 자신이 공격받은 것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말한 사람의 잘못도, 들은 사람의 잘못도 아닐 것이다. 들은 이에게 그것을 배척하고 부정하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타인을 상처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바를, 지금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늘어놓은 것일 뿐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만하고, 대화할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만, 다만,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듣고, 서로를 설득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을 재구성하려는 노력까지, 그 길고 긴 과정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 지난한 과정을 견인하는 몫이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기에' 담론이 부족한 것, 그래서 수많은 '들'은 '이'들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넘기고 싶어하는 것, 그것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용 사회는 그런거야' 하고 넘겨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말하던 이들은 다시 입을 열게 되는 것이었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으니, 언제가 되든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반성폭력 운동은,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귀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문제제기를 했고, 그 과정이 재수없다며 욕하는 사람의 말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그것은 대화를 시작하려는 몸부림이었지만, 대개는 싸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이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성폭력에 대한 똑같은 내용의 대화를 수십번, 수백번을 해도, 답론은 눈에 띄도록 확장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대할 때에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일테다. 매번 대화의 시작, 그 전의 이야기가 이해되거나 흡수된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매번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진 것일테다. 매일, 매달, 매년.

그렇게 반성폭력 답론이 곡해되고 부정되는 가운데 학내에 잘 확산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은, 온전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물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 외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도 잘 살아가는 와중'이니, 그렇게 생각해버리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누구라도 힘이 빠진다. 사실 누군가 영웅적으로 운동을 잘 했다고, 성폭력적인 일상이 눈에 띄게 바뀌지는 않는다. 누구 하나가 잠시 전락을 잘못 세웠다고, 반성폭력 운동을 말아먹는 것도 아니다. 거의 모든 학내 활동은 매년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고 올라온 1학년을 중심으로 한다. 과/반 동아리에는 재미난다는 이유로 매년 비슷한 문화가 판을 친다. 매년 제일 발빠르게 신입생을 포섭하는 것은 여전히 아카라카와 응원과 FM이다. 단순히 표현적으로 보기에 똑같은 것 같아서, '수정가능한' 원인이 없는 것 같아서, 각자 특정한 원인을, 누군가의 잘못을, 유효하지 않은 전락을 찾아내려면 힘이 빠진다.

그래서 지금은 06년, 07년, 08년, 09년 초, 반성폭력 운동을 위해 모인, 혹은 그에 대해 한마디쯤 거든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과, 그것이 다른 어떤 말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지, 내가 한 말이 와전되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지, 그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말이 왜 잘못되었고,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했더라면 힘들지 않았을지를 고민보다는 살짝 가볍게, 생각해낸다. 그렇게 만난 얼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 때에 어떤 과소한, 기쁜, 어이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주었는지를,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기억한다. 지금의 내 언어 속에 그 사람들과의 마주침과 부딪침이 쌓인 것을 더듬어본다. 그러면서 오히려 힘이 난다. 그게 반성폭력 답론을 확장하고 학내를 바꾸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될 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쌓여있는 것을 확인하면, 학내에도 자근자근 쌓여있을 것을 생각한다. 아직은 그 정도다. 그게 내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y 자몽



여자아이가 여자대학생이 될 때까지,
뭐 그리 주체적으로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배워왔겠나.
성적 욕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성폭력적인 포르노그라피와 자꾸 겹치는 것 같은
이 난감함을 어찌하겠나. 그래서,

그 저
난 감 한
와 중 에

이건 확실히 난감해서 쓰는 글이다. 여성주의라는 요물을 만나기 이전에 쌓아왔던 20년간의 섹슈얼리티와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올바르기를 원하는 섹슈얼리티가 충돌하는 과정을 인정하려면, 글을 써야겠다 싶었다. 20년간의 교육과 성폭력을 학습하는 사회에서 체화한 경험을 '아 구려'라는 한마디로 낙후시키는 것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변하지가 않더라. 내 안에서 단절이 일어나지 못하니 충돌하고, 충돌하는 것을 긍정하지 못하니, 어떤 마음을 먹고 안 먹고, 어떤 섹스 판타지를 품고 안 품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판단이 잘 안 서더라. 그렇다고 '뭘 대충 구려'라고 치지 하기에는 찝찝한 것이, 마음먹고 정리하기로 했다.

그냥 숨기면 되는 걸까?

내 소녀 시절의 섹슈얼리티의 부분들은 다양한 여성주의 언어로 긍정되곤 했다. 그 때의 연애는 비가시화되고 통제되는 미성년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려졌고, 자위는 적극적인 여성 섹슈얼리티를 발굴하는 바람직한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소녀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섹스 판타지에 대해서는 긍정은커녕 숨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섹스 판타지는 대부분 성폭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변명을 하자면 이렇다. 첫째, 나의 식구들은 '성'이라는 주제 자체에 엄격한 사람들이었다. 그 주제로 대화를 한 적도 없었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드라마에서 이성애적인 행각을 벌이기 시작하거나 영화에서 섹스신이 나오면 티비를 끄곤 했다. 부모가 섹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 둘째, 하이틴 로맨스 소설을 읽지 않았던 나에게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성'에 대한 정보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나 진지한 영화에 나오는 물리적 성폭력 장면 정도였다. 셋째, 여학생이 학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성', 지하철의 동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성'은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넷째, 포르노그래피를 통해 재현되는 여성들의 '성'은 성폭력과 분간이 안 될 뿐더러, 무엇보다도 아파보였다.

다른 무수히 많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인상깊었던 기억들을 나열하여 종합해보면 이렇다. 나에게 즐거운 성애의 이미지는 희박했다. 미성년에게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초중등교육의 힘도 한 몫 단단히 했을 것이다. 성애는 그것을 즐기면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었고, 폭력적인 것이었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더욱 극대화되면서 동시에 정당화되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소녀의 섹슈얼리티는 태동했던 것이다.

지금도 나는 무의식중에 왜 나는 그 때 섹슈얼리티가 태동했는가와 같은 성보수주의의 관점에 입각한 질타를 나 자신에게 가하게 된다. 왜 소녀인 나는 일찍이 성애 눈을 떴는가, 왜 소녀인 나는 성폭력을 섹슈얼한 것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냥 숨겨두고, 그것을 물어두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잘 몰라서 그랬지"가 될수록, 나의 행동과 그 조건을 여성주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진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며 "성폭력적인 섹슈얼리티를 갈망했던 행동 자체는 지금 나에게 단절할만하다. 그렇다고 소녀 시절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죄책감을 되새기며 그것을 통째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소녀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했던 상황을 다시 돌아보며 그때의 나를 용서해줄 수 있다." 한 번쯤은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건 올바르게 못한 걸까?

언제나 누구나 성폭력 가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객관적인 행위와 가해자 동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맥락과 피해 사실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입이 달도록 말해온 성폭력에 대한 진실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말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까지는, 나를 이해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성애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끊임없이 언제든 가해 욕망을 가질 수도 있는 나의 동기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는 내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성폭력적으로 구성된 섹슈얼리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행위는 나쁜 걸까? 그건 권력관계가 반영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위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느꼈을 때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 나는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건 올바르게 못한 거였을까. 지금은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맥락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피해였는지에 대해 소통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 판단들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가해'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다. '가해의 사례'로 쓰이기에 충분한 그 '행위'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혼란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했다.

그렇게, 성애와 성폭력을 구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나의 '행위'에 놀라자빠지는 시간, 그 '맥락'을 상대방과 함께 판단하는 시간, 상대방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상대방과 '소통'하는 시간, 나의 상대방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까지. 그저 '이건 안 된다'가 아니라, 공동여서 알아야 하는 것임을,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아마 행위만을 두고 "그런 후진 짓을 하다니!"라며 한 방에 낙후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시간은 정말 한 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나의 섹슈얼리티는 지금쯤 혼돈과 손 맞잡고 강강술래를 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야, "남녀칠세 부동석이니, 서로 그냥 떨어져있지?"라는 성보수주의에 입각한 금지의 담론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성애에 성폭력이 겹쳐진다는 것은, 내가 나의 섹슈얼리티를 긍정하는 데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의 상태를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 문제는 아마 두고두고 다시 걸리고 넘어질 것이다. 아마도 한 방에 정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두고두고 가슴 한 켠에 가지고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난감한 것은, "그저 그렇게 두면 병 된다."

by 자웅

성폭력을 마주할 때의 무력감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를 알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문장은 '성폭력을 예외적이며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성폭력은 가부장적 사회의 성별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 구조적인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었다. 여성으로 살면서 성폭력의 위협에 주눅 들었던 경험들, 왜 내가 이래야 하나 억울해하면서도 밤길을 피해 다니던 세월들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지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성별권력관계라는 새로운 렌즈를 끼자, 나에겐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다. 그렇게 바라본 세상은 성폭력적인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했던 나에게, 너가 힘든 건 '네 탓이 아니야'라며 위로해주었다. 여성인 내가 '조심하지 못하게' '본능적인 남성 성욕'을 자극해서가 아니라고, '조심함'과 '남성 성욕'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허구라고 알려주었다.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성이 비난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고, 여성에게 '정조'를 강요하며 수동적인 역할을 맺으라는 이 사회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성폭력의 원인이 성별권력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그 성별권력관계를 깨부수는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폭력을 막아낼 수 있다는 용기로 이어졌다.

反성폭력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

'성폭력에 맞서다'를 읽고



그러나 막상 밤길을 걸을 때, 나는 또 다시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그들이 바라는 '여성'처럼, 그러니까 성별권력관계에 의해 창조된 '수동적이고 나약한 여성'처럼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해버린 것이다. 언젠가의 길모퉁이에는 자위를 하는 남성이 있었고, 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저 남성이 나를 제압하는 상상, 나로선 아무 도리가 없다는 체념이 석화처럼 나를 사로잡았다. 너무 너무 무서웠다.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방향을 꺾 바꾸어 다른 골목으로 뛰어가는 것뿐이었다. 숨 가쁘게 뛰어가면서, 다른 여성들이 그 길모퉁이에 가면 어떡하지, 가서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혹시 성폭력 피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질질 울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울었다.

이처럼 성폭력에 노출된 개별 피해자에게 '성별권력'이라는 구조적 설명은 새로운 힘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 오랜 투쟁, 가부장제에 대한 지난한 투쟁이 연속적으로 쌓이고 쌓여야만 성별권력은 사라질 것이다. (2)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를 위협하는 이와 맞닥뜨렸다고 해도 성별권력을 순식간에 타파함으로써 눈앞의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즉, 성별권력이 사라지기 전에는 성폭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성별권력은 나 혼자 때려잡기엔 너무나 공고하다.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얘기하다보니,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성폭력에 맞서다

〈성폭력에 맞서다〉를 읽으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문장은 '성별권력관계라는 구조는 개인이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익숙해지는 진실이며, 개인은 그렇게 익숙해진 몸의 움직임과 대응을 바꾸어감으로써 이후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었다. 왜 나는 자위하는 남성의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길들여졌고, 그래서 '피해자다운' 말과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밤길에서 자위하는 남성을 만났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몸이 움츠러드는 모습, 자기보다 힘이 센 남성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 가부장제 각본 속에 존재하는 나의 모습뿐이었다. 당장 성폭력에 직면했을 때 가해자를 몸으로 제압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성폭력 피해 경험을 터놓고 얘기하는 용기도 그동안 나에겐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래서 나에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가부장제는 나의 몸에 그러한 방식으로 경험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여성 개개인에게 가부장제가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를 통해 여성 개개인이 이후에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의 삶에서 나는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대응해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에게 '까악' 하고 울소리드는 것보다 '아름! 하며 호통 치는 반응이 더 익숙했다면 어땠을까? 혹은 뒤돌아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급소를 정면으로 공격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반사적인 행동으로 튀어나왔다면? 자위하는 남성은 자신이 기대하는 상황-자신이 재압할 수 있는 여성과 그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성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남성-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응에 깜짝 놀라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 그랬을 때 나의 역사는 '절절 울었다.'가 아니라 '시원하게 한 방 먹었다.'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성폭력에 맞서다〉에서는 여성의 몸을 바꾸어내는 작업으로서 '자기방어훈련'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실려 있다. '자기방어훈련'은 다른 몸 되기 이라고도 불리는데, 여성이 자신의 몸에 각인되어진 여성성을 성찰하고 다른 움직임의 주체가 되어보는 훈련이다. 여성은 항상 아 빠, 오빠, 남자 애인과 같은 남성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탁하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리고 근육은 없을수록, 힘을 쓰지 못할수록 아름다운 몸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보호받는 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입받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이 보호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즉 남성이 여성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여성을 보호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수동적 주체로 상정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력을 획득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권력은 다시 보호자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짐으로써 성폭력이 정당화되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방어훈련은 어떻게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구조와 원리를 간파하고 이에 대항해서 다른 삶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는 훈련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자기방어훈련에서는 몸과 마음을 훈련한다. 호신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훈련도 하고 조심조심 조신한 몸동작을 벗어나서 커다란 공간을 사용하며 팔자걸음으로 걸어보는 훈련도 한다. 땀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렁찬 고함을 치는 훈련도 한다. 근육이 없는 마른 몸매만을 추구하던 나의 욕망을 재구성해서 우라부라한 자신을 뽐내보기도 하고,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싸움의 주체가 되어 격렬하게 싸우는 훈련도 한다. 내게 익숙했던 몸짓과 목소리는 물론이고, 친절함과 상냥함까지 한 번 더 의심하고, 비틀어봄으로써 내면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스스로의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다른 대응을 만들어내는 '말하기 대회'의 이야기도 나온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어쩔 수 없는 침묵을 택하게 된다. 말해도 좋을 것 없고, 말해도 들어줄 사람 없기 때문이다. 설사 말할 수 있게 된다 해도, 많은 경우에 가부장적 틀에 갇힌 '상처 입은 무력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할 수 있을 때만 스스로의 고통을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하다. 말하기 대회는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가 강요했던 침묵이나 각색을 넘어, 피해생존자가 스스로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펼쳐놓는 장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생존자는 피해 경험을 잊어버리거나, 극복하라고만 강요하는 사회에 맞서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묻혀있던 슬픔을 발굴해낸다. 이후의 삶에서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사소화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드러내고 그에 직면하는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말하기 대회를 통해 피해생존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펼쳐 보일 수 없었던 내면의 힘,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적극적으로 이후의 삶을 기획해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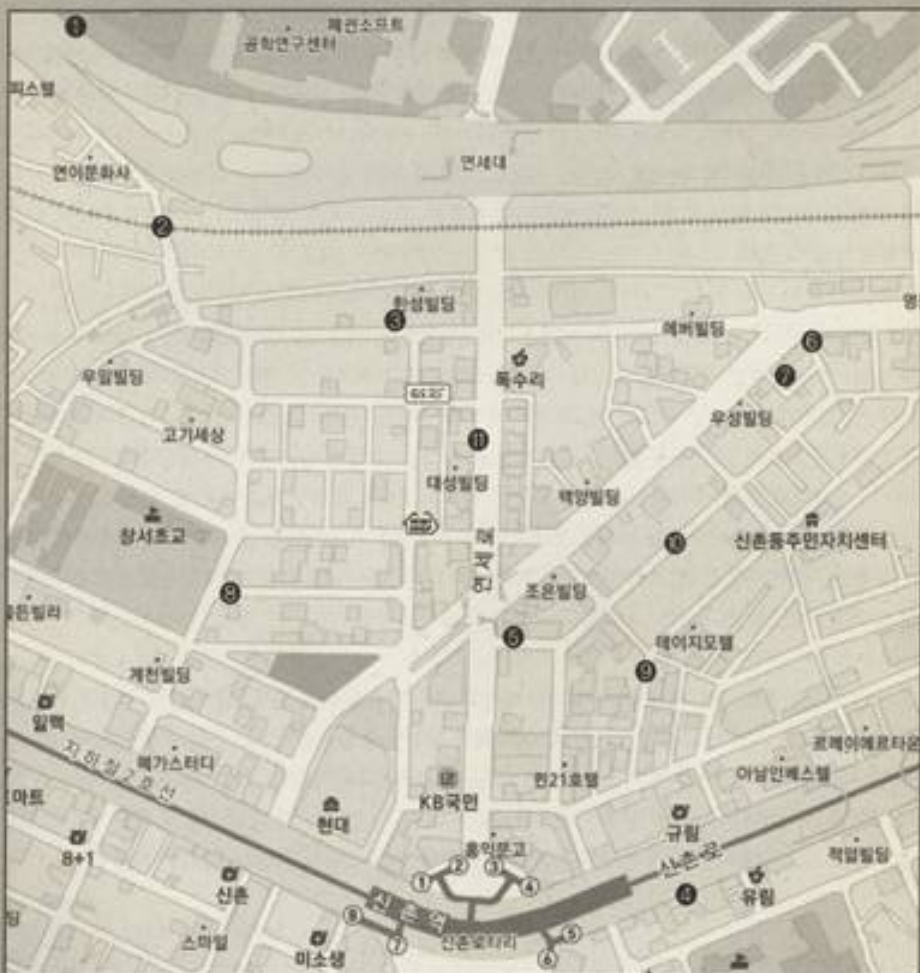
이러한 다른 몸 되기, 말하기와 같은 작업은 처음의 성별권력을 허물어뜨리는 작업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여성 개개인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때, 그러한 역사가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피어날 때, 공고해만 보이던 구조도 폭, 폭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와 동시에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고통과 불안에 공감하는 대화를 놓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개개인이 다르게 대응함으로써 성폭력에 맞설 수 있다는 믿음이 혹시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에게 '왜 너는 그때 다르게 대응하지 못 했냐'며 비난하는 논리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무수한 고민 속에 만난 자기방어훈련, 말하기 대회의 이야기들은 하나 하나 성별권력이라는 거대한 단어에 기죽지 않고, 저마다의 활기로 북적이고 있었다.

〈성폭력에 맞서다〉라는 책의 제목은 여전히 나의 가슴을 뛰게 한다. 내가 가진 원래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멋진 힘을 숨겨왔던 각종 사회적 상황들에 코웃음치고 스스로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사실들이 나의 가슴을 무지하게 뛰게 한다. 나의 몸과 언어를 바꾸어내는 작업이 강력한 반성폭력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렇게 이야기하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흐드러져 넘칠 만큼 많이 보인다. 자, 이제 시작이야. 신나는 기분이 든다.

by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정** **파니**



신촌의 업소지도 그리기



① 운동장 옆, 한적한 큰 길. 아스팔트 사각에 이 길로 걸어가면 뒤에서 차가 뱅뱅거리며 따라오기도 한다. 그들이 그제 위협을 하고 삼문건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차'라는 무기를 지닌 그들이 무섭고 그 공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변태들의 예가 끝다려 지위를 하는 가해자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성기를 포로노그라피적으로 표현해놓은 낙서가 보는 이의 불쾌감을 유발한다.

③ 유사 성행위를 판매하는 업소

도넛 가게 2층 자리에서 길거리 쪽으로 앉으면 다리 부분이 그대로 보이는 유리창이다. 차마 입고는 앉을 수 없거나 원치않는 하인신 노출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정보' 랍시고 공유하기도 하는 짜질한 형태 또한 일각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듯.

직장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술집 골목. 이 골목 쪽에서 놀면 아저씨들이 한팅하려다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술에 취해서 자지고 하길래 꺼지라고 하니 '다른 여자들은 10중 8-9는 최송해요 그러거나 미안한데 아니라고 하는 데 난 새가지가 없다'는 말을 하는 생면부지의 적만하장 아저씨를 만나 기분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

④ 한적한 큰길이라 그런지, 어디로 가는 길목이라 그런지, 이 부근 버스정류장에는 변태가 없다.

⑤ 유사성매매업소 홍보용 길거리 광고물이 서 있는 곳.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이 광고물을 볼 때마다 터리의 욕망이 무려무려 피어오른다.

⑥ 여성비하적인 자매와 행위 -가슴을 감조한 여장과 '오빠오빠' 하는 호격행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노력하는 소극장이 있다.

⑦ 유사성매매업소. 창문에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극대화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⑧ 젊은 여성을 고용해, '착석'해서 술을 따르도록 하는 바. (보통은) 자원을 보유한 남성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만족감을 제공한다.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땀은 직렬! 교수언어서폭력

학생이라 강의실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교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마음놓고 있다면 간간이 내 귀를 찌고드는 교수언어서폭력, 비아성에 정세상에 대한 혐오를 마음껏 드러내기도 하고, 여학생에 대한 차별을, 여성에 대한 혐오를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하는 교수들. 어떤 학생들은 좋아라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학생인자라 위대한 교수한테 '그런 발언 삼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묵로할 건 묵로해야죠?

계절학기 철학입문 시간, 낙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강사가 낙태에 있어서 여성 신체 의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인데 (...) 자기 신체 일부니까 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임신이 되어서 귀찮다. 그러면 자기 선택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휴가 가는데 귀찮아서 낙태를 한다고? 진짜 어이상실이다.



차이코프스키에 대한 강의 중 교수님이 "그런데 차이코프스키는 사랑하지도 않는 여제자와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꽤 알고 있을거예요. 차이코프스키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수업은 게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그러더니 아욱과 남학생들에게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화장실에서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오른쪽 귀만 들은 남자들은... 여러분도 원지 알고 있죠?"라는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그녀는 자신의 지도교수도 알고 보니까 게이였지만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는 얘기 등을 하면서 자신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자상인임을 재차 강조했다. 편견, 아뭏HING 땀어.

07-1학기 개강첫주 경영학과 어느 전공수업 중 타학교 교수로 기억하는 남교수님 1)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는 군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2) 회사 생활하면 상사들이 다 뽀빠뽀 그런 술집에 데려간다. 여자들이 이런거 아해해야 된다. --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 끝나자마자 그냥 나와서 바로 수업 빼버렸거든요 -- 전동

08년 2학기 경제학 수업 중 "고급인력이 집에서 예를 키워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 선진국들 보면 다 그렇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여러분 박사님"라며 동의를 증용했음--

2009년 1학기 문화인류학과 모 수업 K 연사 말 "여러분 뭐니뭐니해도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가족을 만드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 가족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다고 뭐 호-오-오, 레-에즈바-언, 아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들도 존중해요." (사람들 땀 타짐...) "강연을 많이 해보니 빠져나갈 곳을 다 만들어놓죠?" (사람들 또 타짐...)

인권이라기엔 미지근한, 약간은 껄적지근한

인권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불합리를 깨트리지만, 어떤 때는 불합리를 정당화한다. 인권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 할진대, 그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남성 시민은 인간이지만 노예와 여성은 인간이 아닌 시대도 있고, 백인 중산층은 인간이지만 흑인 빈민층은 인간이 아닌 사회도 있다. 인간, 즉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이 가진 자로 한정될 때, 인권은 불합리를 정당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통해 불합리를 깨트리려면, 그를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이들,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고 억압받아도 별 문제 없다고 여겨지던 이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3월은 [연세 36.5 plus]가 지정한 인권의 달이었다. 많은 학생들의 호응이 있었던 이 행사에서 인권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되었는가? 여기, 인권 공모전의 포스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 연세이즘 역시 당연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인권이 당연할까? 모든 연세대학교 학생에게 정말로 인권이 당연함의 문제일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연세대학교 학생은 계단으로만 출입할 수 있는 건물 앞에 들고 싶은 수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성폭력적인 과/반에 노출된 연세대학교 학생은 성적 모멸감에 몸서리치기도 한다. 해마다 치솟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연세대학교 학생은 연거푸 휴학을 택하기도 한다. 장애어부나 소득여부에 의해 교육권이 제약되어서는 안 되며, 성별이라는 기준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억압되어서는 안 되지만 연세대학교의 비장애중심성, 가부장성, 경영 효율성(?) 속에서 이들의 인권은 침해되기 일쑤다.



그렇다면 인권을 당연히 보장받는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연세대학생 중에서도 살아가는 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학생이며 중상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인권이 '우리(연세생)에게만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은,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가려버림과 동시에 모든 연세대학교 학생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서있는 것 같은 허구적인 '연세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인권의 달〉은 이러한 '연세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엘리트리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연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와 같은 문구들에서 보여 지듯, 엘리트 연세인에게에는 어려운 이웃과의 만남도 노블리스 오블리주¹⁾-은혜이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연세인의 자부심'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연세인의 특권'을 정당화하는데 쓰이기 쉽다. (1) 연세대는 세계를 빛내는 글로벌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온 우주에 기여하고 있다. (2) 연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비정규 노동자나 학교에 따지지는 학생은 제외해야 한다-은 모두 '연세인' 이므로 그들 역시 온 우주에 기여하고 있다. (3) 연세대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이 정말로 능력이 있진 않진, 그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진 않진 '연세대학교 졸업 / 교수' 타이틀만 걸면 연줄+학벌+각종 불합리한 특권을 사용해 마땅하다. SKY라면 콧방울 넘어가는 요지경 사회에서는, 위 (1) (2) (3)의 논리에 따라 '자랑스런 연세인' 정체성을 토포히 세울수록 연줄은 질겨지고 학벌은 견고해진다.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찾아주는 것까진 괜찮지만, 그들이 스스로 찾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연세 36.5 plus]의 인권의 달에 호의적이다. 학생 복지에 열심인 총학생회가 사회 참여의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신기하게도 어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학내의 여성주의 운동단체, 비정규 노동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들엔 마뜩잖아한다. 고귀한 학문의 장인 대학에 저열한 정치 논리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전자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선행'이라면 후자는 '이기적인 무리의 정치선동'이다. 이러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권 찾기란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의 인권 찾아주리라 할 수 있겠다. 너무나 약한 '그들'에게 너무나 착한 '우리들'이 베풀어주는 인권 찾아주기. 도덕심이나 선행심에서 비롯한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다만 '의식 좀 있고 돈 좀 있는 엘리트 대학생'만이 그 선행심이라는 것을 배

플 수 있도록 되어있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인권 찾아줄 수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누군가가 인권 찾아주지 않으면 죽어나가는 사람 따로 있는 그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말이다.

이러한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즉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놓는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힘들다. 오히려 선행이나 도덕만 외치는 과정에서, 그 선행과 도덕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권력이 정당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를 보호해주기 위한 권력은 너무도 쉽게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권력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유약한 존재로 고정시키는 성별이분법이 너무나 쉽게 여성을 남성 성욕의 지배아래 놓는 성폭력과 이어지는 것처럼,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만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쉽게 장애인을 교육받지도 노동하지도 못하는 결여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비장애중심성과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려면 (1)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더 많이 강해야 하고, (2) '그들'은 우리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야 한다. 그를 위해서 (3) 강자를 강하게 만들고 약자를 약하게 만들어왔던 규범과 원리들, '그들'의 인권을 삭제하고 '우리'의 인권을 강화해왔던 논리들을 더욱 토포히 세울수록 연줄은 질겨지고 학벌은 견고해진다.

만약 인권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라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성찰하고 왜 누군가는 권력을 가질 수 없었는가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권력의 부당함을 의심하고, 그걸 쌓아 올려준 썩어버린 이 땅의 부당함도 함께 의심해보는 것이 또한 시작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권을 선행을 통해 찾아주는 문제로 여기기 보다는 연대를 통해 찾아가는 문제로 삼을 수도 있을테다. 선행을 베풀면서는 누군가를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위치시키기 쉽지만은, 연대를 가꾸면서는 서로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주체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인간을 억압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인권은 언제나 변화의 단어야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져 왔던 권리들-장애학생의 교육권이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같이-이 부당한 권력관계에 의해 박탈되어 왔다는 진실을 드러낼 때, 인권이라는 단어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동안 가려져왔던 사람들의 존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변화를, 그럼으로써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변화를. 그런데 가진 자'가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인권'에서는 무슨 변화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 나는 인권이라기엔 미지근한, 약간은 걸적지근한 기분이 될 밖에.

● [연세 36.5 plus] 공식 홈페이지: www.yonsei365plus.com

●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특정 기득권층의 도덕성을 칭찬함으로써 그들만 권력을 역시 충성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에 속아 넘어간 무수한 사람들 ~ 기득권층에게 부딪히는 약자들은 사회적 특권을 갖게됨으로써 권력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해나가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전해진다.



대의원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학교 생협의 2009학년도 사업계획은 크게 생협의 역대, 복지 및 편의시설 활성화, 서비스의 다양화와 최적화 세 개로 이루어져있다. 결국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춘 '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생협 직원들에 대한 '인력 관리' 부분이다.

생협 매장에서는 생협의 의의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노동하는 것이 원래 생협의 모습이다. 하지만 LG아워홈이나 한울샘, 솫을샘에서와 같이 생협에서 외주를 주게 되면 외부업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게 되며, 외부업체는 자기들의 '시장 논리' 대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투자'로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연세대 생협은 생협 매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노동자들에게 한 달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을 주는지 마는지, 일손이 부족해서 설새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아닌지, 그 모든 문제를 외부 업체의 책임으로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와 조합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생협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인해, 같은 공간 안에 생활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것을 관심 밖의 일, 내 책임이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생협 실무자는 2009학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원 교육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를 약속하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대의원의 승인을 기대했다. 직원 교육에는 주로 '친절교육'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친절교육이란, 일이 얼마나 많은 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고객의 만족을 위해 매장 직원이 반드시, '친절한 태도'와 '항상 웃는 얼굴'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협동조합?

Your comfort

is my silence

④ 학교 생활 대의원 총회에는 교수 대의원 30명, 교직원 대의원 30명, 대학원생 대의원 20명, 학부생 대의원 30명, 생활 지원 대의원 3명이 모여 생활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를 가졌다.

● 현대 학교 생활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소외자와 같은 위치에 있지만, 현대 생활에서 조합원들은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 생활의 조합원은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고민해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신을 담양하는 기업에 불만을 사지 않을 정도의 소외자로 여기기할 수 있으며 조합원 중 누군가는 '재테크'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재테크'를 제 공하는 사람으로 분리할 수 있다.

● 2009학년도 전기 대외원 홈페이지 자료집 p.68



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협 매장서,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요구되고 있을까?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서비스직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바로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음을 떠올릴 수 있다.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미소 짓고, 모두에게 친절해야 하는 태도가 바로 여성들에게 권장되는 바이자, 현재 '소비자' 들을 대하는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대체로 요구되는 바이다. 이런 마치 '소비자' 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같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남성들에게는 일상적인 업무로 요구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강제되는 감정노동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서비스 체고' 라는 이름 하에 계속해서 생협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목표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미소 띤 얼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도 높은 노동이다. 하루 종일 서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물건을 계산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감정노동을 하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 업무에 가중되는 또 다른 업무인 것이다. 점심시간이 실질적으로 30분이 채 안 되어도, 화장실이라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매장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움푹달라 못해도, 생협 직원이라면 어떻게든 웃어보이라는 '친절교육', 생협에서 이러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교육훈련비' 라는 명목으로 '전년 대비 27.96% 증액하여 편성'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친절교육, 고객을 만족스럽게 맞이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생협의 조합적인 성격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생협 직원과, 학생과, 교직원과, 교수 조합원들은 서로 생협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등한 주체이지만, 누군가를 소비자, 누군가를 서비스 제공자로 상정했을 때에는 그 관계가 '소비' 로만 이야기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협 실무자들은 생협이 어떠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생협 안에서 조합원들과 만들어가야 할 관계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대의원총회 자리에서 묻고 싶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 생협 구조로는 이러한 고민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학교에 딸린 하나의 기업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생협에서는 학생 조합원들을 학교

혹은 기업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야만 하는 '착한 학생' 이나 '소비자' 이외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생협 이사장이자던 의장님도,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설명하던 생협 실무자 분도 학생들을 정말 생협 대의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분들의 눈에 대의원들은 그저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거수기' 역할을 담당할, 누구라고 해도 상관없을 이름의 무리들이었던 것 같다. 충분한 설명도 없이 대략적인 개요만으로 된 70여 페이지의 회의 안건지를 총회 1시간 전에 받아본 사람도 많았는데, 보고내용이나 승인사항에 대해 발제하는 시간은 안전 당 5분 내외였다. 당최 무슨 내용의 안전인지 파악할 시간도 없는 채로 대의원들은 질문을 해야 했다. 10여초 안에 생각나는 질문이 없으면 바로 의결로 넘어갔다. 그나마도 몇 차례 학생 대의원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했을 때 질문이 조금만 복잡해지려는 기미가 보이면 의장님은 '회의를 빨리 끝내야 하니 질문을 최대한 간결하게 해달라'고 말을 자르곤 했다. 질문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생협이라면 조합원들이 가진 고민들을 물어내고 함께 논의해서 생협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협 실무자라면 '생협을 생협답게 만들기'를 고민하는 조합원들이 생협의 민주적인 가치, 생태적인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할 때, 너희는 대표성이 없으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생회가 그런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제안이나 하라'고 잡아뭉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협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갈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대의원총회에 앞서 학부생 대의원들은, 후생복지관 건립을 위한 생협 적립금을 백양로 지하캠퍼스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과, 학생식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어 생협 이사회에 전달했었다. 하지만 역시나 '잘 참고하겠다'는 이사회회의 답변을 받았을 뿐, 이것이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보지 못하는 현재 학교 생협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대의원 총회의 마지막 순서에 '생협'은 생협의 방향성과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열심히 함께 생협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발제했다. 지금의 학교 생협을 정말 생협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 생협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라면 생협에 대해 의지 있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움직임들을, 어떻게 하면 생협에 실제적으로 반영할지 고민해나가야 한다. 학생 '대표' 들에게 비한 밥과 술을 사주며, 괜한 악수를 청하며 점수나 따려고 하지 말고,

by 난 아직도 학습의 의미가 궁금해, 루

● 2008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자료집 p.66

● 생협을 생협답게 만들기 는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연세대 생협을 만들어가기 위해 학생 조합원들이 만든 모임이다. 생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태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하여 '농민한 식사' 열화제를 운영하고 '리팩토 생협'에서는 어떤 실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이를 토대로 연세대 생협에서는 어떠한 시도들이 가능할지를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중학교 시절부터 속칭 BL, 즉 Boys' Love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소설 및 만화에 빠져 있었다. 나는 당시 PC통신 슬램링크 동호회에서 처음으로 BL을 접하게 되었는데 내 기억에 그것은 아마 서태웅과 강백호가 커플인 슬램링크 패러디 소설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 때 가부장제의 성별이 분별과 이성애중심주의를 뒤엎는 전복적인 상상력에 놀라며 패러디물을 읽-지는 않았고, 그냥 재밌어서 읽었다.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던 남-남 커플링에 다소 신선한 충격을 받기 했지만 읽고 보니 강백호와 채소연, 서태웅과 채소연보다는 서태웅과 강백호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즐겁게 읽었던 것 같다. 처음 패러디를 통해 BL을 접하게 된 이후 나는 패러디, 팬픽, 창작물을 가리지 않고 각종 BL을 섭렵했다.

내가 접하게 되는 BL물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표현 수위가 높은 것도 점차 접할 수 있게 됐다. 말하자면 포옹이나 키스, 혹은 수위가 약한 베드신까지 등장하는 소프트 BL에서 대놓고 섹스신이 표현된 하드 BL까지 보게 됐다는 거다. 뭐, 표현수위가 신경 쓸 거리도 안 됐다. 그런데 소프트 BL이든 하드 BL이든, 아무리 BL물을 볼 만큼 본 나라고 해도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설정이 있었다. 그건 바로 남성성이 극대화된 공-여성성이 극대화된 수의 커플링(이성애관계를 상상했을 때 흔히 남성 역할을 하는 것을 공, 여성 역할을 하는 것을 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과, 공이 수를 강간하는데도 결국 둘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설정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통상 남성성/여성성으로 구분되는 속성을 공/수가 그대로 나눠가질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공/수동적인 수라는, 흔히들 이성애관계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관계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에서 매우 나를 갑갑하게 했다. 여성주의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도, 가냘프고 어리버리해서 남자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여주인공과 여자를 휘어잡는 터프한 남주인공이라는 순정만화의 오그라드는 설정을 참아내지 못했던 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을 답습하는 BL 역시 보기 힘들었다. 후자는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꼴도 보기 싫은 설정이었다. 공은 좋아한다면서 수를 강간하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또 수는 어찌어찌하다 그 폭력에 익숙해지고 결국은 공을 필요로 하게 되는, 심지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게 대체 뭐난 말이지. BL물을 창작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BL에서 남성 중심 강간 판타지가 충실하게 재현되는 것은 더욱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외에도 성별권력관계에서의 남/여 구도를 공/수의 구도로 그대로 전환한 설정은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공이 가진 게 없는 수를 돈으로 사서 제멋대로 다룬 다든가 하는 설정도 있었고, 연애관계에서 공이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해가는 설정도 있었다. 가끔 정말로 두 주인공 간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좋은 작품도 있었지만, 그런 작품을 만나는 일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었다.

● 이제 와 생각해보니 강백호-채소연, 서태웅-채소연 커플이 매력 있게 느껴진 것은 당연했다. '소년만화'에 속하는 슬램링크에서 여성 캐릭터인 채소연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는 남성 캐릭터들에 비해 빈약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녀는 농구를 사랑했고 중학교 때는 여자농구부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복싱고고에서는 벤치에서 서서 '멋진 남자'들의 플레이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 그녀와 강백호, 서태웅 사이에선 그다지 볼 볼 튀기는 사건이 일어날 일이 없었고, 강백호가 일방적으로 채소연을 희사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던 했지만 그가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잘 와 닿지 않았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던 강백호와 서태웅의 관계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이처럼 보통 소년만화에서 여성 캐릭터들은 주변화되거나 보조적인 캐릭터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묘사되는 캐릭터와 관계만 놓고 보면 남-남 커플링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BL은 남/여가 남/남 간 관계로 달라진 것 외에는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별권력관계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성별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남성이 맡는 역할과 여성이 맡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BL 작품 속에서는 공과 수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공(攻)과 수(受)라는 명명 자체에서도 나타나듯이 공은 적극적이고 상대방을 주도하는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에 비해 수는 관계에 있어서 공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측면이 강하다. 물론 이런 범주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관계 자체에 대한 고민에서 등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캐릭터의 다양화를 위한 목적에서 등장한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BL물에서의 관계 묘사는 썸메기만 남-남으로 바뀌었을 뿐 알맹이는 기존 성별권력관계 하에서의 남-여 관계의 복사판이기 때문에 기존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BL 장르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꼈음에도 내가 계속 BL물을 봤던 것은 BL물이 나의 섹슈얼리티를 그나마 덜 불편한 방식으로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포르노그래피같은 경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적 섹슈얼리티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여성은 그야말로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구화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그런 방식의 묘사에서는 성욕을 느끼기보다는 마치 내가 폭력을 당하는 듯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와 유사한 불편함을 많은 여성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 여성독자가 대부분인 순정만화나 로맨스 소설의 경우에는 성적인 묘사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 BL은 상대적으로 객관화된 위치에서 두 캐릭터 간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수위의 성적 묘사가 등장해도 어느 정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성별권력관계 사회 하에서 섹슈얼리티의 주체는 주로 남성이 되고 여성은 수동적으로 대상화되는 위치에 머무르게 되므로 여성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많은 제약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남-남 관계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묘사하는 BL은 여성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억압된 섹슈얼리티를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여성들이 남-남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은 태생적으로 동성애 관계를 타자화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온전히 드러낼 수도 없다. 이는 여성 섹슈얼리티가 억압받는 사회에서 일종의 왜곡된 방식으로 여성 섹슈얼리티가 발현되는 방식인 것이다. BL 장르는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비가시화되어 왔던 동성애 관계를 상

상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상상이라는 것이 실상 동성애 관계 자체를 고민하지 않은 채 여성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성된 판타지이기 때문에 젠더 문학처럼 비이성애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성애중심성을 전복시키는 힘을 가질 수는 없다. 또한 BL 장르는 성별권력관계와 성별이분법 하에서 남성중심적으로 작동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이를 있는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그 속에서 여전히 삭제되거나 혹은 왜곡된 방식으로만 드러나게 된다.

내 섹슈얼리티를 만화나 소설 같은 매체를 통해 마음껏 드러내고 싶어도, 나처럼 창의력이 빈곤하면 차마 창작할 엄두가 안 나서 남이 애써 창작한 작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그런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뻘뻘하지만 진짜 맘 놓고 편안하게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볼 만한 작품이 별로 없는 건 사실이다. 특히 여성 섹슈얼리티의 경우 여러 매체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무지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성 섹슈얼리티의 작동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섹슈얼리티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를 고민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남성은 섹슈얼리티의 주체가 되고, 여성은 남성에게 성적인 응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남성 섹슈얼리티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주로 그려지는 건지, 누군가의 섹슈얼리티를 일방적으로 억압하거나 타자화하지 않는 섹슈얼리티 작동 방식은 어떤 것인지 등등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성별권력관계와 이성애중심성을 뒤엎는 섹슈얼리티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때,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자유로우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맨스 소설이든 순정만화든 BL이든, 기존의 섹슈얼리티 담론에서 벗어난 전복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기발하면서도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그런 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모래더미에서 빛나는 구슬 하나를 찾으려고 방패 눈 팔개저가며 백사장을 뒤지기도 하는 한번쯤 구슬더미에 좀 파묻혀보고도 싶다.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이든, 나처럼 작품을 소비하는 사람이든, 지금까지 아주 재미도 없이 주구장창 길게 써놓은 거-이게 다 창의력이 부족해서다-, 같이 한 번 고민해보자. 그 고민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여성 섹슈얼리티가 그 속에서 마음껏 활개 치는 빛나는 구슬들이 하나 둘 씩 푹 튀어나올 거다.

by 임 민아게 문화 생활 좀 즐겨보자 딸리

● 이렇듯 왜곡된 판타지를 통해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은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을 답습했을 뿐이며, 이를 성욕을 드러내거나 충족시키는 유일한, 혹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거 아니? 여성영화제!



여성영화제에서 영화를 10편이나 보게 된 이유?

작년 이맘때 즈음이었을 거야. 그때 처음 여성영화제를 대비해서 표도 예매하구 같이 갈 사람도 찾고 그랬거든. 그때는 그냥 영화제 한다니까 몇 편 골라서 맘 맞는 친구들이랑 한 두편 볼 생각이었지. 한 세편정도 봤을 거야. 영화제가 끝나구 땅을 치고 후회했지. 뭐 별거있겠냐 싶었는데 오마이갓~ 그게 아니었던 거야. 유명하고 재미있는건 벌써 영화제 시작도 전에 예매가 끝났구. 인기 있는 영화표 구하려면 아침 일찍 나서야 한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되었지. 그리고 멋모르는 나 같은 사람들은 여성영화제의 베테랑들끼리 아는 멋지고 재미있는 영화를 그냥 지나치기도 한단 말이지. 오호 통제라. 작년 여성영화제에서 '이티비티티티 위원회'를 놓친 건 정말 한이있어. 본 사람들 말로는 유쾌 상쾌 통쾌하게 배를 잡고 웃었다는데 정말! 그래서 다른데서 볼 수 있나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안들어왔고, 영상구하기는 어렵다는거야. 그 때 아니면 못보는 영화였던 거지. 흑(ㅠ)

그래서 이번엔 마음 단단히 먹고 4월에 단단히 버리고 마니아카드를 발빠르게 구입했어. 선착순 300명만에 든거지 우후후. 사만원에 총 열편을 볼 수 있는데 친구랑 같이 봐도 되니까 내 주위에도 같이 쓰는 사람이 많더라구.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일은 수백편의 영화 소개글을 꼼꼼히 읽어가며 감동과 재미를 다 갖춘 TOP 10편을 고심고심해서 고르는 거지. 아~ 그거 정말 힘들더라. 마음 같아서는 이것저것 다 보아놓고 싶은데(언제 이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겠어?) 수업시간하구 겹치고, 보고 싶은 영화끼리 시간 겹치는 게 참 수강신청 못지 않더라구. 그래도 작년의 한을 되새기며 이번엔 최대한 스케줄을 빼놓았기에 망정이지 일주일에 마니아카드를 어떻게 다 뺐겠어?(그렇게 왜 이리 영화제 기간이 짧은지나구우.. 거기다 같은 영화는 두 번밖에 상영안하고 말았)

여성영화제에 더 그리 대단한게 있다고 그렇게 동동거리고 있었나구? 그래 맞아 요즘 영화제 참 많지. 그렇지만 여성영화제만의 매력은 또 따로 있던 말함! 어려운 단어 좀 써서 말하자면 남성중심적 가부장적인 세상을 뒤집어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기존 영화에서 제일 짜증나 했던 것이 개연성 없이 창조된 여성캐릭터(그 여자의 인생관이나 내면심리는 코딱지만큼도 나타나지 않고 '원래 그런 인간'으로 표현되는)나 꼭 남성과의 관계로 회귀되거나 마무리되는 여성 캐릭터의 인생, 이런 것들이었거든? 폭력적인 상황을 '사랑'이나 '가족'에 라는 등의 구구절절한 포장지로 미화시키는 장면들은 더더구나 최악이지. 그런데 여성영화제 영화들은 그런 폭력적인 시각을 반성하고 지양하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기대 안해도 된다는 점이 참 좋아. 여성영화제의 영화에서는 기존의 틀에서는 상상되지 못했던 관계들이나 재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해서 색다르고 풋풋한 감동이 팍팍 느껴진다구. 그래서 내가 그 영화들을 보면서 내 안의 생기여너지를 올리려구 이렇게 열심히거 아니겠어.

이제 여성영화제 영화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지지 않았어?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고른 주옥같은 영화들을 다 절절히 소개하고 싶지만 지면의 부족으로 중요한 것만 소개하겠어. 난 제작년과 작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을 다루었던 <외박>을 봤어. 그 투쟁 현장에 나도 몇 번 가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화면 속 일이 남일 같지 않더라. 너도 한번쯤 들어봤을 거야. 못들어 봤더라도 영화를 보면 생생히 감정이 느껴질 거야.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살아가는 각각의 여성들이 어쩌다 힘겨운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처음 "투쟁"이라고 외치면 어색한 목소리. 그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매체나 주위들은 이야기를 통해 알게 모르게 색안경 끼고 보았던 그녀들의 투쟁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어. 우울한건 실다구? 나도 평평 울었지만 그녀들의 힘찬 모습에 힘을 받았는걸.

아! 그리고 대망의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를 빼놓을 수 없지. 이진 한국 영화이구 유명배우(공효진, 신민아)가 주연이라 다른 영화에 비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상영할거야. 혹시 이 글을 읽고 여성영화제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면 이 영화를 추천할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영화인데. 두자매가 갑자기 여행을 떠나면서 각자의 가족상이나 감정들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야. 아빠 없이 살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지만 숙편하고 긍정적인 언니와 아빠가 없음을 큰 상실로 느끼며 속에 상처가 많은 동생. 이렇게 정말 정말 많이 다른 자매가 아빠를 찾아나서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가족'이 정말 뭔지 '환상의 가족상'을 찾아 헤메고 있는건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 정말 이 영화는 직접 보고 느껴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스포일러를 조심해)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강력 추천 영화야. 내가 보증할게(ㄹㅇ)

벌써 다음에 4월이 기대되는걸. 이만하면 너도 보고 싶어서 마음이 움직 들쭉 하지 않나? 해해 그럼 다음 여성영화제에서 보아!!

by 율무♡

처음에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진실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그 알약을 의미하는 줄로만 알고 받아든 책이었다. 저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될지를 의식하고 선택하는 순간이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큰 차이에 도달하기까지 먼 훗날을 내다볼 능력이 없다. 그야말로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눈이 먼' 상태라고 해야 할까.

과학 또한 마찬가지이다. 거대한 제동수를 바탕으로 촘촘히 들어앉은 소위 전문지식은 각 영역들을 뚫고 채우고 있으나, 전체를 일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전문가일수록 자기 영역에서 고유한 인식론으로 다른 영역 문제까지 선불리 재단하려 드는 경우가 허다한 즉, 이 역시 일종의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리고 이 작품 '푸른 알약'은 그 넓디넓은 과학이라는 대양을 이루는 한 방울짜리 '부조화'라는 단어에 화자가 본통을 터뜨리면서 시작한다. 과학이 헛소리라고, 빌어먹을 의사들이라고 이를 갈면서, 그러나 그 '부조화'라는 낱말 하나가 에이즈에 대한 '과학'의 태도를 제대로 요약했다고 할 수 있을까? 화자의 분노가 '과학'을 향한 것이기는 할까?

자기에겐 친숙한 생활영역을 침범해들어온 낯선 무엇,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 HIV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이 의학 언어를 통해서뿐일 때 오는 소외감, 그가 과학의 권위를 불변해하는 까닭은 저 소외감이다. 의사가 바이러스 전파경로와 생활주기, 각종 검사들, 약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증상을 판별하고 치료법을 권유할 때, 그저 의사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환자의 의무일 수는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현재의 삶을 매몰시키며 전전긍긍 과학의 권위에 매달리는 것만이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선택지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왜 다른 무수한 질병들에 대해서는 예방이 허용되는가. 앓고, 낫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허용되는데, 에이즈 환자는 그러려고 하면 연감생심이 되는가. 나는 에이즈의 치사율을 묻는 것이 아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순환 논리는, '질병은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학적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질병은 치료받아야 하지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푸른 알약

프레데릭 페테르스 지음, 유영 옮김, 세미콜론



이 만화는, 환자로서, 환자인 어머니로서, 환자의 어머니로서, 그들의 동거인으로서 에이즈를 이야기하는, 에이즈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다. 과학 밖에서-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과학에 발을 딛고 서서-이러한 '다른 형식'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면모를 띤 HIV와 에이즈를 만나기 시작한다. 특히, 에이즈가 동성연애하는 것들이나 걸리는 질병, 문란한 것들이나 옳은 성병, 그런 것들에게 내리는 치명적인 천형 콤으로 통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인간화한 에이즈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다른' 접근법이다. 에이즈가 섹스와 공모하는 악마로 간주되는 한 숭숭장구하는 에이즈 포비아는 우리 사회가 HIV 감염인을 취급하는 강력한 태제일테고, HIV 감염자는 윤리적 하자, 산 채로 자육에 떨어진 가련하고도 열등한 영혼들에 다름아닐텐데 말이다.

물론,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눈가리개를 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사람이다. 스스로 장님 되기를 자처하는 것, 모두가 공유하는 가장 큰 진실임에도, 에이즈는 현대에 들어서 가장 강력한 죽음의 이미지를 팔고 있는 질병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 암보다는 에이즈가 더 '치명적'이라고 평하는 것이 일반적 반응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렇게 '죽음'과 강력하게 연루되어있는 만큼 공포도 강력해지고, 사람들이 에이즈라는 단어와 거리를 두기 위해 기꺼이 치르려는 댓가(혹은 시장 가격?)도 치솟게 된다는 사실도 잠깐쯤은 머릿속에 꽂아둘만한 이야기이다.

이 만화는 그래도 행복을 꿈꿀 여유라도 있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푸른 알약'에 대한 접근권은 전 세계 상에서 지극히 소수에게 허락된 꿈이다. HIV 감염자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기회조차 쉽게 얻지 못하게 만드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작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솔직하게 쓰건대, 이들 연인이 여성주의 운운할만한 무슨 겨리가 담긴 연애를 보여주는지는 않는다. 책 뒤표지 표현대로, '두 남자가 만나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평범한 연애담'으로 축약하는 데에 하등 문제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에서 스스로를 그리고 있는 작가는 여성주의와는 겨리가 없고, 그러나 참으로 속 편하고 관대한 남자일 뿐이다. 여자친구는 과거를 후회하며(과연 그녀가 문란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을까?) 모성애가 넘치는 여자다. 남자친구가 부모를 대하는 방법까지 걱정하고 배려해준다, 강인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고, 여자답다-너무나도 여자다워서 그에게는 '일본 판 화 속 여자'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동양은 여성적이고 여성은 동양적일조!) 그녀는 내가 저 전설적인 헐리우드 터프가이라는 (백인 남성) 스티브 맥퀸처럼 느껴지게 해준다!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에이즈를 의식하느라고 섹스에서 수동적인 태도만을 취했던 것이 그렇게 좋았더라. 물론 남성 화자의 시선에서는 그저 자기가 남자답게 느껴지는 것이 좋았다는 순진한 고백으로만 표현되지만 말이다. 작가는 동정심을 버렸다고 여러 차례 고백하지만, 적어도 그가 모종의 권력 불균형에 기반을 둔 섹스얼리티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밖에도 많다. 얼 씨구, 너는 내 운명'을 다시 만났다, 어디까지나 지고지순하고 관대한 남성의 품에서 완성되는 애절한 사랑과 섹스, 아무래도 '푸른 알약'이 그렇게까지 극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연인들의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 찼찼하지 않은가.

<일상, 올림>, 이렇게 살았어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벌써 1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일상, 올림>에서도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어요.



반! 성폭력

- 성평등한 대동제를 위한 간담회를 성희롱/성폭력 상담실과 함께 진행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별분업 없고, 밤샘 때 공간분리가 되고, 술자리 성희롱 성폭력이 없는, 모두가 즐거운 대동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농활을 성평등하게 진행하기 위한 간담회를 성희롱/성폭력 상담실과 함께 열었어요. 과/반에서 농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평등한 농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되는 질문을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자연자연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를 계속 진행해 왔어요. 대동제 때는 집터 및 주점에서의 성별분업, 술자리 성폭력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 했어요. 이러한 고민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배부하고, 현수막을 써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 맺기

- 에코페미니즘 운동 팀에서 대동제 때 일화용품들을 쓰지 않고, 로컬푸드를 구매하여 생태장터를 열었습니다. 장터의 이름은 '녹색성장이 싫어서 슈퍼의 늪을 지키는 카페'였어요. 대안생리대를 만드는 시간도 가졌고, 유기농 토마토를 직접 갈아 마시는 주스, 최소한의 노동력을 통해 신선한 야채의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로컬푸드 셀러드 등을 판매했어요. 장터가 끝나고 치우면서 쓰레기가 정말 적게 나와서 다들 놀라며 기뻐했어요. 공정무역 커피를 파는 카페 티모르와 여성인무회 생협과 함께 했습니다.
- 지역의 먹거리를 통해 자연을 되살리고 대기업의 원포에 맞선다는 의미를 담아서 대동제 기간 장터에서 사용할 로컬푸드 공동구매를 추진했습니다. 사회대 2반 + 사회학과 + 문화인류학과, 3반, 6반, 법대 4반, 노동법학회, 문대 10반, 교육대 국제대와 총여학생회가 함께했습니다.

여성노동을 힘차게 이야기하다

-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팀이 새롭게 총여학생회 팀으로 꾸려졌어요. 세 번 모임을 가졌고,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3층
왼쪽 분홍문
총여학생회실에
언제든 놀러오세요.
페미니즘을 이용하러
오셔도 좋고요,
그냥 이야기하러
오셔도 좋아요!

비장애중심성을 뒤엎다

- 중간고사 기간에 문대, 이과대, 공대, 사회대, 법대, 교육대 학생회와 신대 여학생회와 함께 총추는 베이커리 빵을 판매하고, 장애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했어요. 총추는 베이커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소외된 장애여성의 일자의 창출을 통하여 장애여성의 독립적인 삶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고자 만들어진 곳입니다.

소모임 네트워크와 함께 힘 받는 일상

- 학교 안에 있는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함께 만든 소모임 홍보책자를 배포했습니다. 소모임 네트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모임 네트워크 클럽(club.cyworld.com/cocktail2009)에 놀러오세요~

소통으로 피어나는 여성주의

- '나도 몰래 언어가 꿈틀꿈틀 나오는 여성주의 꿈틀꿈틀 세미나'가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4주차로 진행되었어요. 매주 성폭력, 가족, 이성애중심주의, 여성노동에 관련한 커리큘럼 읽고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어요.
- 매달 화장실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알리며 소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소식지는 학관, 대강당, 중도 여자 화장실에 가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총여학생회 홈페이지(web.yonsei.ac.kr/ysfem/)의 '지금 총여학생회는'에 들어가시면 매주 총여학생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홈페이지에 오시면 강의평가 게시판에서 여성주의 강의평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성폭력적인 분위기, 성차별적 발언 등이 있었는지 평가하실 수 있어요.

여학생 교육권을 외치다!

- 연세교육공동행동 이만미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 학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계약직 상담원 1인이 교육, 행정, 상담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상담업무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만미일에서 교육대책위원회의 신설과 상담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신중도(학술정보관)나 강의건물이 아닌 건물 등에는 생리대 자판기가 아예 없고, 생리대 자판기가 있는 곳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기계가 낙후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생리대 자판기를 교체할 것과 없는 곳에는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여성주의 자기평가훈련 수업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자기평가훈련은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이에요.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팀에 함께해요!



언젠가 이랜드에서 집단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를 상대로 배정 잡거 농성에 들어간 여성노동자들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나와 가까운 사람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여성 노동에 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생겨나게 된 후여야 나는 그것이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우리 엄마와 그리고 곧 취직을 하게 될 나의 동생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여성 노동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여성 노동에 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할 것들이 점점 많아져갑니다. 어째서 '일파갈'이라고 불릴 만한 스펙을 살지 않으면 관습은 직장에 들어가기에 그렇게나 어려운 것일까요. 왜 내 친구는 구직에 성공하기 위해 외모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왜 나는 엄마가 일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가족들을 위해 밥하고 청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 엄마처럼,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의 미화직 여성 노동자들처럼 만나장을 잊혀지고 남성 노동자의 6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그렇게나 많은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소 짓고 있는 스텝어디스나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까요. 왜 여성은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라고 불리기보다는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아들' 혹은 '아기'로 불리는 걸까요.

나 혼자 이런 의문점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쩔 때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쌓여온 여성 노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함께 둘러앉아 내가 생각하는 여성 노동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재미난 활동들도 함께 만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 노동을 새롭게 재구성해보고 여성이 노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 구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거지요. 여성노동팀의 첫 세미나가 5월 넷째 주에 있을 예정이에요. 여성 노동에 대한 나의 고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싶다면, woolim@yonsei.ac.kr로 메일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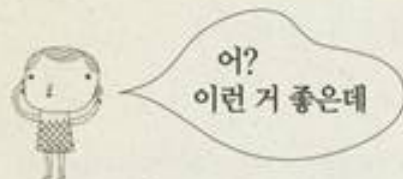
요즘 나, 좀 힘들어



나는 작년에 여행을 하면서 무언가 다른 걸 좀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다. 슬리퍼를 끌고 바다로 기어 들어가 꿈처럼 불타는 하늘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았을 때, 내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게 아닐까, 라고 한숨을 쉬며 편지를 띄워 보냈던 것 같다. 카메라 프레임 바깥에서 빛과 바람을 가두는 입장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숨쉬고 싶었다. 처음으로 몸상이 아니라 피와 살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게 단절된 도시에서 내가 안전하고 차분하고 진지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거의 없다. 주로 이불 속이나 달리는 버스 안에서나 쉬거나 생각을 할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정신 없이 달아나며 허겁지겁 땀을 삼키는 좀머씨처럼 혹은 중력 부적으로 내장이 짓눌려 죽어가는 저중력권의 인간처럼 불행하다. 난 어딘가에 좀 걸터앉아서 생각을 하고 싶었다. 콘크리트는 땅을 덮으면서 동시에 마음을 덮는다. 콘크리트 지하를 지배하는 건 뿌리일까, 파이프일까?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영토가 남아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하늘에는 철근을 박을 수 없겠지. 해저와 지구 중심의 정복 불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 사라지지 않은 비정형의 거대한 공간으로 사라지고 싶다. 그렇지만 그 곳은 공기가 희박해서 숨 쉴 수 없겠지...



우리의 빠르기로 사고하고
우리 몸이 숨 쉬는 곳,
에코페미니즘운동팀



화장실에서 발견한 한 줄 글귀를 따라 찾아간 <에코페미니즘운동팀>은 이런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지난 3월, 그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와 있는일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방부처리 된 나머지 썩지 않는 통을 누는지 떠올렸고 바빴었다. 그렇게 자기 일상 속에서 스치듯 사라져 버리는 고민들을 공들여 나누고 실천으로 바꾸어보기로 했다.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여겼고 유쾌해졌다.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근대과학과 가부장주의로 세뇌 당했고, 분열하고 환원시키는 데 너무 익숙하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거기다 주로 당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그 모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백이 흘러나왔다.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의 뿌리가 썩었다는 게 느껴졌다. 과학, 기술, 생명과 환경의 담론은 끊임없는 파괴와 소멸을 장려하고 위장했다. "내가 아닌 너를 타자화하고, 배제하고,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자!" 그럼 너, 는 누구였던걸까? 인간 대 비인간, 인간 대 자연, 여성, 농민, 부족민……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개발하고,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자!" 이런 커다랗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 속에서 어릴 적에 가졌던 생명과 존재의 고유성과 연결성에 대한 의식은 제기 당한다.

우리 내부에서 울리고 있는 작은 종, 강동한 초의 심지를 태우는 불꽃 같은 것, 모호하지만 핵심적인 것을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진 않다. 이제까지 익숙하고 당연했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지식과 신념체계를 쌓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삶이 내가 행복하도록 바뀔 때까지 말이다. 에코페미니즘은 그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고, 그 의미를 해설하고, 소통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을 함께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내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생태여성주의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생태적인 학생 자치활동(MT, 뒷풀이, 대동제 등)을 건의하고, 생태적인 생활을 만들어나가고, 분리수거등과 관련한 학내 노동문제를 생각해보는 탐들과 접촉해보기. 송도에서 죽어가는 물새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비생태적인 캠퍼스에서는 공부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을까? 나 자신의 반생태적인 일상을 반성하는 생태적인 대학생할 매뉴얼, 채식 레시피 만들기는 어떨까? 이명박정권에서 대두되는 담론과 정

책들의 허구성을 뒤집어야 하지 않을까? 여성의 몸에 대한 몰이해 덩어리, 해롭기 그지없는 화장품과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넌 요즘 뭐하니?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빗발을 가꾸고 있어.

오호,
이거 재미있을 거 같네



그러면 참에 <대동제 로컬푸드 공동구매>와 더불어, 대동제 천막 하나를 꿰어차서 일시적이지만 전복적인 공간과 문화를 꾸며보기로 했다. 구호는 '보다 느리게, 보다 낮게, 보다 부드럽게! 경쟁과 무한성장의 기치 올림픽에 '환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건지, 임시지옥과 '환경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비둘기 보기도 하고나 할까. 이름은 '녹색성장 싫어서, 슈렉의 눈을 지키는 카페!' 이제는 어디에나 끝이다 붙이는 녹색성장, 현재 가장 반생태적인 핵심 담론 '녹색성장'을 꺼발해보자. 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었던 슈렉의 집으로 어느 날 문득 쳐들어오는, 아니 도망쳐오는 조그만 동화 속 주인공들을 떠올리며 지냈을, 천막 밑에 까는 스티로폼부터 컵과 접시에 이르기까지 일회용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익숙하고 당연했던 친절과 빠른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버리길. 자기가 직접 해 먹는 거 좋잖아?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대신 얘기 한마디 더 나누고 글 한 편 더 읽고 가는 거 어때? 유기농 채소와 제철 과일, 팔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팔고 싶은 만큼 팔고, 잘 팔리는 게 아니라 팔고 싶은 걸 판다. 이 참회는 찹쌀 채로 먹는 거 몰랐죠? 오후 3시부터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는 거. 지금 여기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해보고 싶었고, 복적이고 소란스럽고 소모로 점철된 대동제 한복판에서 조금 다른 것, 이런 건 어떨까? 라고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by 뽀

2009년 5월 14일, 중도 앞에서 만날 수 있었던,
처음 만나는 생태 카페.
총여학생회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이 준비한

「녹색 성장이 싫어서, 슈렉의 늪을 지키는 카페」



두런두런 모여앉아 대안 생리대 만들기!
여성의 몸에 대한 고려 없이 몸에 나쁜 화학약
품을 잔뜩 넣은 일회용품 생리대가 아니라, 자
신의 손으로 직접 대안생리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의 몸을 돌아보고, 또 함께 만드는
친구들의 미소를 둘러보는 평화로운 시간.

여성민우회 생협 분들이 직접 오
셔서 나란히 함께 만든 생태 카페.
첨가물 싫어 방부제 싫어 유기농 좋
아! 라며 유기농 로컬푸드로 만든 주스
를 판매했어요.



카페 제목은 집에서 입던 옷들로
꾸몄어요. 열매들이 진열되어있는 테이블 옆
에는 누가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나의 손까지
들어왔는지 써놓아 한 눈에 알 수 있었지요. 벽
면에는 이명박 정부의 한꺼풀 '녹색'을 벗기고,
생태적인 고민을 담은 전사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힘 안 들이고 신선한 야채를 그대로 담은
'슈렉 마를 샐러드',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통째로 씹어먹는 제철열매' 바나
나, 토마토, 참외, 방울토마토, 오이. 모두
여성민우회 생협을 통해 들어왔어요.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고 커피 농가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맺는 공정무역 방식을 통해 동티모
르에서 재배된 커피를 판매하는 Cafe Timor! 일회
용품이 아닌 자기 컵 들고오면 천원이나 할인해서 팔았
답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들어온 동티모르의 커피를 일
회용품이 아닌 컵으로 자랑스레 먹었을 때의 느낌이란!



생태카페를 지키고 있는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원들이예요. 그간 함께 나눴던 에
코페미니즘에 대한 고민들을 마음껏 담아 처
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들어갔던 생태 카페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등잔 밑에 성폭력, 날아와 봐야!



27일 WED

오후 6시 30분 학생회관 4층 제 1, 2 연습실

워크샵 : <자기방어훈련 워크샵>

성폭력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또 여성으로서 조심하게, 소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강요받는 것을 벗어나 몸을 쓰는 법을 배우는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워크샵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워크샵은 프로그램의 성격상 여성참가자만 함께 합니다. 함께하실 분은 메일을 주세요! woolim@yonsei.ac.kr로 불러주고 싶은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28일 THU

오후 6시 30분 광복관 모의법정

영화 : <공평하게 정상적인>

25년 전의 성폭력 가해자를 찾아나서는 두 자매의 공평하게 정상적인 이야기

29일 FRI

오후 6시 광복관 모의법정

강연 : <대학 내 남성성과 남성문화>

연사 : 권인숙 연세대 교수, 「대한민국은 군대다, 「선배, 저자 대학에 존재하는 남성문화의 실체와 속성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강연



여성폭력 주간 내내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에서
데스크를 설치하고
자보전을 진행중이에요!

등잔 밑으로만, 자꾸만 숨겨지고 가려져왔던 성폭력 이야기들! 눈 부릅뜨고 밝혀내어 여섯 가지 자보로 풀어보았습니다. 자보전에는 사이버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곡이 담겨 있고요, 여성폭력 서포터즈가 준비한 남학생으로서 관계맺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득하니 함께 합니다. 여성폭력 주간에 중앙도서관 앞에서 세워질 데스크에서는 기부장지를 아드락아드락 씹어먹기 위한 사랑과 함께 여성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출주는 입술> 2호를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9 봄-여성주의 세미나 후기
반짝반짝 빛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번 봄 세미나는 풀 네임이 참 길었어요. "2009 봄 꿈을꿈을 세미나-나도 몰래 언어가 꿈을꿈을 나오는 여성주의 세미나"였죠. 한 번에 말하기엔 너무 길고 또 숨이 차는 이 제목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도 두근두근 말할 만큼 길고 또 때로는 숨이 차는 이야기였어요. 곧 만나게 될 (바로) 당신의 이야기도 이렇게 긴 이야기겠죠? 세미나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낮에 총학생회실에서 모여서 반성폭력, 이성애중심주의, 가족, 여성노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었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조금은 쑥스럽게 하지만 힘차게 만나기

성폭력의 기억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력이 늘어나도, 밤길이 무서워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잊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경험이 거부당하고, 없었던 일처럼 취급당하는 거야말로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지,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특정 성을 타자화하고, '친밀감'을 내세우며 충분한 고민 없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 같은 행동을 하고, 타인의 몸을 대상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이제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나 학생은 무성적인 존재라고 제멋대로 간주하며 오랜만에 만난 제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나, 살빠졌다는 식의 평가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었다고 생각하던 선배에 대한 기억도 갑자기 생각났고요. 서로의 일상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파이트백을 응원하고 같이 자기방어훈련 하자고 외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힘이 되는 세미나였어요.

페미니리 책 읽고 서평 쓰자!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는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분홍색 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분홍색 문을 똑똑 두드리고 '페미니리 사용하러 왔어요' 한 마디면 방해받지 않은 채 학내 여성주의자들이 읽고 싶고, 느끼고 싶어 차곡차곡 모아온 여성주의 서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가 뭘까?라는 소소한 질문에 답을 줄 여성주의 입문서에서부터, 주제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에세이와 여성의 시각에서 서술된 소설책들, 그동안 담론으로 구성되지 않던 여성의 몸, 여성적인 것, 여성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나의 관계맺음을 세밀하게 성찰하는 여성주의의 작은 목소리에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고방식을 뒤집어보고 해체해내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을 비롯한 모든 이와의 관계성을 고민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 이 많은 이야기들이 페미니리의 책 한 권 한 권에 스며 있습니다.

책꽂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편안한 독서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수도, 대어목욕에 도서관을 적고 2주간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관 계단 사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yslem>)에 올라와 있는 페미니리 도서목록 페이지를 보고 전화로 요청하시면 총여학생회 집행부가 학생회관 앞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 여성주의에서 여러모양의 무한한 우주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페미니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주의 책을 골라 읽고 난 후,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낸 서평을 woolim@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서평은 '총추는 입술' 다음 호에 실리게 됩니다. 글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총여학생회에서 제작한 예쁜 텀블러를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여학생회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2009년 5월 31일까지

신청 및 문의 woolim@yonsei.ac.kr / 02)2123-3645

<http://web.yonsei.ac.kr/yslem>

총여학생회 특별지원금은 학내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 모임 및 여학생 모임 등을 대상으로, 모임의 성격,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학내 여성주의, 여학생 소모임에서 여성주의 세미나, 매체발행, 여성주의 행사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색슈어리티, 젠더,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단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여학생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yslem>)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거나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앞에 놓여진 신청서를 가져가신 후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계단 사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신청서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영수증은 스캔해서 신청서와 함께 메일로 보내시거나 총여학생회실에 직접 오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후기

고아워, 인쇄중여, 자몽

어제 마감...이라디, 무동! 반성 또 반성-흐하하흐! 하
[히] 사랑해 애들이 루

밤을 새지 않겠다는 결의는 무너지고...내 글은 안 나오
고...바안해 이런 마감 담당이라서... 달리

내가 마음을 하면서 느꼈게, 완전 열심히 안하면 안될 것
같애 근데 난 열심히 안하잖아, 난 안될거야, 아아, 수염

잠인지 생인지 커졌다 사라져버린 노래, 붙잡지 못한 채 내
마음에 남았네 내 마음에 남았어 피니

머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쓰기 힘들네
너무 글이 안 써져서, 아나 못 쓰겠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
고 자려고 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웠더니 머리가 맑아지더
냐?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글이 써질 것 같았다. 마침
그때 모기가 나를 번번이 일어나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모기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물론 그 모기
는 지금 살아있지 않다. 라임